

문제성 주식투자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 주식의 도박성에 관한 고찰 -

강준혁, 맹성준

을지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주 제 분 류

사회복지, 정신건강

주 제 어

주식투자, 내러티브 탐구, 도박

요 약 문

이 연구의 목적은 과도한 주식투자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탐구해 주식투자의 도박성과 중독성을 밝히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총 3명의 내러티브 주인공을 선정했으며, 1:1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Connolly와 Clandinin(1990)이 제안한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돈에 대한 열망, 주식정보 입수, 변동성, 돈의 가치 상실, 차트에 갇힌 영혼, 남아있는 불씨를 논의의 주제로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주제들을 종합한 결과 주식투자 경험의 내러티브는 “돈에 대한 열망과 주식정보로 ‘주식도박’에 중독된 후 벗어났지만 단도박을 장담할 수 없음”으로 종합되었다. 연구자들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돈의 의미에 대한 성찰 기회 제공’, ‘중독재활 상담사에 대한 주식 및 경제 교육’, ‘주식 절제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사행산업 개념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접 수 일 : 2018년 7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8년 7월 29일

게재확정일 : 2018년 8월 2일



생명연구 제49집 2018년 8월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49, Aug 2018, pp. 191~239
<https://doi.org/10.17924/solc.2018.49.191>

문제성 주식투자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 주식의 도박성에 관한 고찰* -

강준혁**

을지대학교

맹성준***

성균관대학교

I. 서론

대한민국은 1992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여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 증권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2월 말에는 약 3,925조원이었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12월 말에는 15,474조원에 다다랐다. 단순히

* 본 논문은 2017년 한국연구재단(과제번호 NRF-2017S1A5B805747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제 1저자

*** 교신저자(e-mail: bossmsj@skku.edu)

산술적으로만 살펴보더라도 약 4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이다.¹⁾ 또한 과거에는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야만 주식투자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식시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엔 어디서든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개인들의 투자가 늘어났다.

개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위험에 빠지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금융투자실태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수익을 창출한 사람은 10%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²⁾ 또한 주식투자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³⁾⁴⁾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가족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족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⁵⁾ 대한민국은 이미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개별 가정이 직면한 경제적 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⁶⁾ 과도한 주식투자

-
- 1)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2018.03.20. (검색일: 2018.06.19.)
 - 2) 김기범·김민선·박재표, 「주식 투자 격언에 대한 시장 반응 비교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권 9호, 2015, 5982-5988쪽.
 - 3) <뉴스1>, 「정부청사에서 투신한 김씨 아들 “아버지 주식투자로 돈 잃은데다 우울증도 심해져”」, <http://news1.kr/articles/?851332>, 2012.10.14. (검색일: 2018.6.19.)
 - 4) <부산일보>, 「60대 남성, 주식 투자 큰 손실 후 목 매 숨겨」,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118000111>, 2018.01.18. (검색일: 2018.6.19.)
 - 5)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and Simons, R. L,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 65, No. 2, 1994, p. 541-561.

에 대해서 사회적 개입과 관심이 필요하다.

물론, 주식시장에는 주가의 급등락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있다. 이를테면 주식시장이 개장하고 있을 때에 발동하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사이드카(Side Car) 등이 있고, 종목이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으면 시장경보/투자유의 제도를 운영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안내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변동성 때문에 주가는 언제든 폭락할 수 있다. 게다가 2015년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커지면서 주식투자의 위험성이 더 증가했다.

상술한 것처럼 주식투자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주식투자의 경제적 효과나 법적인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⁷⁾⁸⁾⁹⁾¹⁰⁾¹¹⁾. 반면 주식투자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더욱이 주식투자가 도박성향을 띠고 있음을 밝혀낸 연구¹²⁾가

6) 조준배, 「경제적 스트레스요인이 부부갈등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자아존중감과 자기생활만족도 그리고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7, 2009, 153-174쪽.

7) 김순석, 「주식제도의 개선: 종류주식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28권 3호, 2009, 131-173쪽.

8) 김희철, 「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 연구 - 미국 델라웨어주의 최근 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50권 4호, 2015, 347-368쪽.

9) 김현석·서정원, 「무상증자, 액면분할, 주식배당: 주가와 거래량 효과」, 『한국증권학회지』, 47권 1호, 2018, 27-67쪽.

10) Butler, A. W., Grullon, G., and Weston, J. P., "Stock market liquidity and the cost of issuing equity",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Vol. 40, No. 2, 2005, p. 331-348.

11) Jacoby, G. and Zheng, S. X., "Ownership dispersion and market liquidity", *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ial Analysis*, Vol. 19, 2010, p. 81-88.

12) 백용호·차명준, 「도박심리를 이용한 주식투자 행태분석」, 『한국증권학회지』, 16권 1호, 1994, 395-435쪽.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의 도박성,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후속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주식투자로 인해 개인이 겪게 되는 내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경험자의 이야기를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II. 이론 검토

1. 주식의 도박성

본 연구의 초점인 주식의 도박성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도박에 대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도박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왜 주식투자가 도박적 특성을 갖는지를 논해보고자 한다. 도박은 기원전 약 6,000년부터 전 세계에서 행해졌으며,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는 인류의 보편적인 행동이다.¹³⁾¹⁴⁾ 기존 문헌에서는 도박을 ‘재화를 얻거나 재미를 위해 도박장에서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베팅을 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¹⁵⁾¹⁶⁾¹⁷⁾¹⁸⁾¹⁹⁾

13) Custer, R. and Milt, H., *When Luck Runs Out : Help for Compulsive Gamblers and Their Families*, New York: Facts on File, 1985.

14) Sifakis C., *The Encyclopedia of Gambling*, New York: Facts on File, 1990.

15) 김교현, 「병적 도박 선별을 위한 K-NODS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권 3호, 2003, 487-509쪽.

16) 이순목·김종남, 「도박중독 문제의 본질에 충실한 평가/진단 및 비율 산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권 1호, 2009, 1-26쪽.

17) 강준혁,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과 실존체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8) Problem Gambling Institute of Ontario, *Problem Gambling: The Issues, the Options*, Canada: Centre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 1990.

19) McGurrin, M. C., *Pathological Gambling : Conceptual, Diagnostic, and Treatment*

이 개념에 담긴 용어들을 재정리하면 우연성, 유희성, 자본성, 공간성이 도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식투자는 상술한 도박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첫째, 주식투자는 도박의 특성 중 우연성을 가지고 있다. 주식투자는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개념이지만, 기업의 가치가 높더라도, 주가는 다양한 변수(경기전망, 금리, 통화량, 물가, 환율, 원자재가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자 성공을 예측하기란 쉽기 않다.²⁰⁾

둘째, 유희성이다. 도박의 동기로서 금전적 보상과 쾌감을 언급할 수 있는데, 주식투자 역시 투자자가 예측한 것이 맞았을 때, 금전적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예측한 것이 맞았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승리감과 우월감 등의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셋째, 자본성인데, 주식투자는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없으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자본성 역시 주식투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공간성이다. 주식투자 역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물리적으로 여러 증권회사들의 본·지점이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어느 공간에서든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일반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서론에 기술한 것처럼 가격제한폭이 30%로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존재하지만, 파생상품시장의 경우에는 다르다. 일반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실현하거나 배당금을 받음으로써 경제

Issues, Sarasota, Florida: Professional Resource Press, 1992.

20) 장경천·김현석, 『증권투자론』, 삼영사, 2009.

적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파생상품시장은 미래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를 예측해서 거기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가격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도박적인 특성이 더 강하다. 물론 3천만 원 정도 증거금이 있어야 하고,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일반 주식시장보다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생상품시장의 도박적인 특성이 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주식의 중독성

도박이 사람의 행동을 강제하는 중독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마력(魔力)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박의 중독적인 특성은 재미를 느끼면서 돈을 버는 것,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거짓희망을 심어주는 것, 결과를 알 수 없기에 호기심의 세계로 유혹하는 것,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가 있다.²¹⁾²²⁾²³⁾

주식 역시 상술한 도박의 중독 성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주식은 재미와 돈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투자자는 투자할만한 여러 기업들을 물색하고, 재무제표 및 기업에 호재가 될 만한 정보들을 살펴본 다음에 주식투자를 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투자가치가 높은 기

21) Martin, H. P. & Schumann, H., 강수돌 옮김, 『세계화의 덫: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 영림카디널, 2003.

22) Griffiths, M. D., "The role of subjective mood states in the maintenance of fruit machine gambling behaviour", *Journal of Gambling Studies*, Vol. 11, No. 2, 1995, p. 123-135.

23) Dickerson, M. G., Baron, E., Hong, S. M., & Cotrell, D., "Estimating the extent and degree of gambling related problems in the Australian population: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Gambling Study*, Vol. 12, No. 2, 1996, p. 161-178.

업을 찾아냄으로써 흥미를 느끼기도 하며,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한다면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다.

둘째, 주식투자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거짓희망을 심어주기도 한다. 주식투자는 정부에서 사행산업으로 분류하지도 않았고, 경제부흥에 도움도 주는 등 숨기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박과는 다르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주변에서 주식투자에 관한 이야기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주변 지인이 주식투자로 수억 원을 벌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선불리 투자를 했다가 크게 실패를 하고, 심지어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여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²⁴⁾

셋째,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인데, 주식역시 투자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주식투자는 다양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지만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²⁵⁾ 이러한 특성은 투자자의 기대감과 궁금증을 유발한다.

마지막으로 현실도피의 수단인데, 많은 투자자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전업투자자’를 꿈꾼다. 전업투자자는 거래처나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월급쟁이로 고단하게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이 고단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투자의 길로 들어선다. 전업투자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의 마력에 빠져든다고 해서 모든 투자자들을 중독자라고 할 수는 없다. 냉정한 판단에 기초한 투자로 이익을 창출하는 건전한 투자자들이 과도한 투자자들보다 많을 것이다.

24) 장진모, 『주식의 역사』, 한국경제신문, 2004, 52쪽.

25) 윤재수, 『대한민국 주식투자 100년사』, 길벗, 2015.

그렇다면 건전한 투자와 중독적인 투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중독을 가르는 기준은 금단현상, 내성, 일상생활의 부적응 등이 있다.²⁶⁾

과도하게 주식에 몰입된 투자자들 역시 위와 같은 현상들을 경험한다. 문제성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개장 전·후 그리고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공휴일에도 계속 주가를 확인하고, 관련된 인터넷사이트 등을 계속 바라보며 불안해하는데 이는 일종의 금단현상이다.²⁷⁾ 또한 주식투자는 현찰이 아닌 숫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 돈에 대한 감각을 상실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 투자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부적응이 있는데, 문제성 투자자는 주식에 대한 과도한 몰입으로 일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빗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한다.²⁸⁾ 심지어 주식투자를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중독관리센터나 단도박모임에서는 과도한 주식투자를 도박으로 인정하고 문제성 투자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에서 정한 사행산업 종류에 주식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미 도박중독과 관련 기관에서는 과도한 주식투자를 도박중독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듯 과도한 주식투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성 주식투자를 도박중독의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2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ition(DSM-5)*, Washington DC: Author, 2013.

27) 박영옥, 『주식투자자의 시선』, 프레너미, 2016.

28) 이규성, 『개미가 주식시장에서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이유』, 문예출판사, 2011.

Ⅲ. 연구방법

1. 내러티브 탐구

연구자들은 ‘문제성 주식투자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Connelly와 Clandinin²⁹⁾이 제안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방법을 활용했다. 내러티브 탐구란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찾아가는 방법이다.³⁰⁾³¹⁾ 내러티브 탐구에서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야기가 인간의 경험과 삶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³²⁾³³⁾³⁴⁾

그렇다고 모든 이야기가 내러티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만, 내러티브는 경험의 맥락을 드러내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이야기는 별 하나하나를 말하지만, 그 하나하나를 연결하면 별자리가 된다. 이처럼 내러티브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시간, 사회, 장소적 맥락으로 구성된 삶의 이야기이다.

29) Connelly, F. M. & Clandinin, D. J.,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Vol. 19, No. 5, 1990, p. 2-14.

30) 엄지숙, 「내러티브탐구(Narrative Inquiry)를 통한 유아 세계 이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전이 경험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권 3호, 1999, 57-82쪽.

31) Clandinin, D. J. & Connelly, F. M., *Shaping a professional identity: stories of educational practice*, Alban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90.

32) 김필성,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비교 고찰」,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2권 3호, 2014, 83-96쪽.

33) Bruner, J.,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34) Clandinin, D. J. & Connelly, F. M., 소경희·강현석·조덕주·박민정 옮김,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경험과 사례』, 교육과학사, 2007.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네 가지 핵심용어인 삶을 살아내기(living), 이야기하기(telling),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 다시 살아내기(reliving)를 강조한다.³⁵⁾ 내러티브 탐구에서 참여자는 연구자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연구자는 참여자와 함께 이야기를 탐구한다(다시 이야기하기). 이후 반성과 재구성을 통해 참여자의 삶은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엮어지고 참여자는 이야기되는 삶을 살게 된다.³⁶⁾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문제성 주식투자 경험을 이해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는데 내러티브 탐구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2. 내러티브 주인공 선정

이 연구에서는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 방법으로 내러티브 주인공을 선정했다. 세평적 사례선택이란 특정 분야에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연구주제에 맞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³⁷⁾ 연구자들은 과도한 주식투자로 어려움을 겪은 내러티브 주인공들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만들고 이에 부합하는 사람을 소개 받았다. 기준은 첫째, 과도한 주식투자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본 경험이 있을 것, 둘째, 주식투자 문제로 인한 내적(심리적), 외적(사회적 관계문제) 갈등 경

35) Clandinin, D. J., 염지숙·강현석·박세원·조덕주·조인숙 옮김,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2015.

36) 최희진, 「중등체육 예비교사의 교육실습 체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6권 1호, 2009, 57-75쪽.

37) Miller, L. M. & Carpenter, C. L., "Altruistic leadership strategies in coaching: A case study of Jim Tressel of the Ohio State University", *A Journal for Physical and Sport Educators*, Vol. 22, No. 4, 2009, p. 9-12.

험이 있을 것, 셋째, 문제성 주식투자로 인해 중독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으로 정했다. 연구자는 이 기준을 중독관리센터와 단도박모임에 설명하고 총 3명의 내러티브 주인공을 추천받았다. 이 연구에서 주인공 수를 최소화 해 선택한 이유는 내러티브 연구의 특성상 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많은 수의 사례를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내러티브 방법을 다룬 문헌에서는 연구참여자 수를 최소화 할 것을 권한다.³⁸⁾³⁹⁾⁴⁰⁾⁴¹⁾

〈표 1〉 내러티브 주인공들의 기초정보

구분	연령	주식투자 당시 직업	손실액	기타
주인공 1	50대	자영업 (통신사)	3억	종목 변경 (주식 → PC게임방)
주인공 2	40대	회사원 (무역회사)	10억	종목 변경 없음
주인공 3	30대	학원 강사	1억	종목 변경 (주식 → 카지노, 경마)

38) 김진우, 「질적연구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자료, 2012, 22쪽.

39)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2012, 148쪽.

40) 홍현미라·권지성·장혜경·이민영·우아영,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학지사, 2011, 207쪽.

41) Cresswell, J. W, 조홍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옮김,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학지사, 2010.

3. 자료수집 및 분석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1:1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했다. 면담은 2018년 1월부터 동년 5월까지 주인공당 3회에 걸쳐 실시했다. 면담 시간은 평균 90분 이었다. 원활한 면담 진행을 위해 연구자들은 주식투자 계기, 주식투자의 매력, 주식투자의 위험성 등을 포함하는 면담질문지를 준비했으며, 이를 면담에 활용했다. 무엇보다 주인공들이 면담질문 외에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썼다. 면담은 내러티브 주인공의 사무실, 거주지 주변 카페에서 진행했다.

자료수집과 분석은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안한 내러티브 탐구의 5단계 절차에 기초하여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에 들어가기: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2)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field texts)로: 이야기의 장소에 존재하기 3)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4) 현장 텍스트로부터 연구 텍스트(research texts)로: 경험에 대한 의미 만들기 5)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이다.⁴²⁾⁴³⁾ 더불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은유적인 삼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시간성-사회성-장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신경썼다.⁴⁴⁾ 삼차원적 은유공간은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내러티브 탐구의 틀을 제시하기 위해 발전시킨 은유적 용어이다. 이것은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연속성(continuity), 개인

42) 엄지숙,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권 1호, 2003, 119-140쪽.

43) Clandinin, D. J. & Connelly, F. M., 소경희·강현석·조덕주·박민정 옮김, 2000.

44) 김병국, 「내러티브 탐구의 존재론적, 방법론적, 인식론적 입장과 탐구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인류학연구』, 15권 3호, 2012, 1-28쪽.

적·사회적 상호작용(interaction), 그리고 장소라는 개념의 상황(situation)을 말한다.⁴⁵⁾

4. 연구의 윤리적 이슈 고려 및 엄격성 확보 노력

1) 윤리적 이슈 고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들은 IRB의 연구윤리 기준을 준수했다. 이밖에도 연구자들은 내러티브 주인공들에게 연구의 취지에 대해 직접 설명했으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 직장 등 연구주인공의 직접적인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다.

2) 엄격성 확보 노력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엄격성 확보 전략 중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성(prolonged engagement)’,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peer support group)’, ‘다원화 전략(triangulation)’, ‘연구참여자를 통한 재확인(member checking)’ 전략을 활용했다. 첫째,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성을 위해 연구자들은 면담 수행 전 연구 주인공들과 사전 만남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취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에 대한

45) 엄지숙·Jennifer, M. K., Yi, L.,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교수경험에 대한 성찰」, 『한국교원교육연구』, 24권 2호, 2007, 243-262쪽.

동의를 구할 수 있었다. 둘째,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를 위해 중독재활 전문가 1인, 주식투자 전문가 1인, 질적 연구 전문가 1인을 동료 집단으로 구성하고 이들로부터 연구 전반에 대한 조언을 얻었다. 셋째, 다원화 전략에서는 자료의 다원화 전략을 활용했는데, 연구자들은 면담 자료 이외에 주인공들의 단도박 소감문, 현장 연구노트를 분석에 활용했다. 넷째, 참여자를 통한 재확인을 위해 분석결과를 주인공들에게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

V. 연구결과

1. 내러티브 주인공들의 문제성 주식투자 경험 이야기

1) 내러티브 주인공 1의 주식투자 경험

내러티브 주인공 1은 50대 남성으로, 1990년대 초 친구들의 권유로 주식투자를 했다. 당시 자영업으로 번 돈을 주식에 투자했으며, 주식투자로 인해 3억 원 가량 손실을 입었다. 투자 실패로 인한 괴로움을 잊기 위해 PC게임방에 출입했고 심각한 도박중독 증상을 보였다. 현재는 모든 도박을 끊고 단도박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야기 1: 만만했던 세상

90년대 초 내러티브 주인공 1은 나이 서른에 이동통신 대

리점 사업을 했다. 사업은 잘 됐고 쉽게 큰돈을 벌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에는 일반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을 하루에 벌었다. 지갑에는 늘 백만 원씩 넣고 다닐 정도로 돈도 잘 썼다. 이때까지만 해도 점점 커지는 허영심과 자만심 때문에 세상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한다. 파김치가 되어 가게 앞을 지나가는 직장인들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까?” 라고 비웃을 정도였다. 당시 주인공의 모든 판단기준은 돈이었다. 그래서 더 쉽게 많은 돈을 벌려고 했다.

이야기 2: 친구 따라 강남(주식투자) 그리고 과감한 베팅

주인공은 자영업을 해서 번 돈과 자신감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다. 그러던 중 금융권에서 일하는 후배와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주인공은 처음부터 과감하게 투자했다. 그의 투자 방식은 대기업 우량주를 구입해서 5년, 10년을 기다리는 장기투자 방식이 아니었다. 단기간에 승부를 보는 단타매매였다. 투자 금액은 억 단위를 넘어갔다. 그렇다보니 주식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까지 약 여섯 시간 사이에 2~3천만 원 정도는 쉽게 잃고 뺏다. 투자 단위가 크다보니 1~2백만 원 가지고 하는 다른 도박이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당시 1~2천만 원도 적은 베팅 금액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여기서 주인공이 ‘뺏다!’는 표현은 썼다는 것에 근거할 때 그가 주식을 도박처럼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야기 3: 발동한 승부욕과 미래 계획

주인공이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했던 데에는 ‘발동한 승부욕’도 한몫했다.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승부욕, 집착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것을 “생물학적인 인자”라고 표현했다. 친구들과 딱지치기를 하거나 구슬치기를 하더라도 잃으면 승부욕이 작동해 딸 때까지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딱지 따먹기를 하다가 집에 들어가지 않아 모친에게 자주 혼난 기억이 있을 만큼 승부에 강한 집착이 있었다고 한다.

승부욕과 함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주식투자 동기로 작용했다. 주인공은 주식을 할 때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투자 금액이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집을 바꾸거나 차를 바꾸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는 여러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그는 주식으로 돈이 생기면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 명품가방도 사주고 외식도 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은 잠시였을 뿐 투자 실패로 인해 미래 계획은 실행할 수 없었다.

이야기 4: 투자실패로 생긴 좌절감을 다른 도박으로 달랠

주인공은 결국 주식투자로 3억 원까지 손실을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가족역시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특성상 매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2억 원을 잃었을 때도 아내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주인공은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 1억 원 정도 손해를 보고, 투자했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2억 원을 더 손해 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인공은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이 괴로운 심정을 달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방법을 찾기는 찾았다. 건전한 방법이 아니었을 뿐이다. 주인공의 괴로움을 달래줄 유일한 방법은 또 다른 도박을 하는 것이었다. 베팅 금액은 주식보다 훨씬 적었다. 그래서 더 쉽게 할 수 있었다.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PC게임방에 출입했던 것이다. 주인공의 구술에 의하면 PC게임은 투자실패로 괴로워하던 그에게 마약 같은 것이었다. 도박이 괴로움을 달래줄 유일하고 강력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야기 5: 돈이 없어서 못했지 안한 게 아님

주인공은 PC게임을 시작한 후 더 이상 주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사실 하지 못한 것이지 안한 것은 아니었다.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만약 큰돈이 계속 뒷받침 됐다면 주식을 계속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몇 백만 원은 주식에 투자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 단위의 큰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식투자를 해야 할 동기를 찾지 못했다. 주인공의 구술에 의하면 주식으로 잃은 돈이 몇 억 원 이기 때문에 500만원이나 천만 원이 있다고 해도 큰돈을 딸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적은 돈으로는 하는 투자를 시시하다고 여겼다. 주식투자자들이 자주 쓰는 ‘high risk high return’이란 말이 실감나게 하는 대목이다. 이것을 통해 주식이 사행산업 범

주에 속한 일반 도박보다 더 위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인공 역시 주식을 일반 도박보다 더 위험한 도박으로 여겼다. 액수로만 보면 주식으로 더 많은 돈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야기 6: 망가진 내 삶

불행인지 다행인지 주인공은 10년 넘게 PC게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돈을 따보지 못했다. 오히려 1억 원 정도를 잃었다. 쌓이는 건 돈이 아니라 자책감, 좌절감,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뿐이었다. 매일같이 돈을 잃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다. 이때부터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다. 매일 아내와 다투고 자녀에게 말대꾸 한다는 이유로 욕하고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외부로 향하던 분노는 결국 주인공 자신에게로 향했다. 자신의 삶을 비판하고 자살시도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차량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눈을 감았던 그는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다. 간신히 살아난 것이다.

이야기 7: 회복의 길

자살시도 후 응급실에서 깨어난 주인공은 세상을 달리 보기 시작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 다른 도박자들의 비참한 삶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가족, 따뜻한 집 등 자신에게 도박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이라는 작은 것에 빠져 살았던 지난날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과 기쁨의 순간을 혼동하고 살

있다고 구술했다. 많은 사람들이 큰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새 차를 샀을 때, 월급이 올랐을 때 느끼는 기쁨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다. 주인공은 단지 살 집이 있고, 탈 차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인공은 현재 회복을 위해 단도박모임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인간개조이다. 주인공의 구술에 의하면 이것은 성격 변화와 내적 성장을 의미한다. 그는 단순히 단도박만 해서는 억제력만 생길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주인공은 자신을 도박중독에 빠트린 충동성, 조절장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도 단도박모임 참석, 인성공부,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내러티브 주인공 2의 주식투자 경험

내러티브 주인공 2는 40대 남성으로, 2006년경 무역회사를 다니면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주인공은 대학에 다닐 때 이미 학교 선배에게서 주식을 배웠다. 주식투자로 인해 10억 원 가량 손실을 입었다. 주식투자에 실패하면서 실현을 겪었지만 다른 도박을 하지는 않았다. 현재는 회복을 위해 단도박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이야기 1: 부자에 대한 동경

주인공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무역회사를 다녔다. 무역회사는 ○○동 무역센터 안에 자리했다. 무역센

터 주차장에는 수입차가 즐비했으며, 국산차라고 해도 비싼 고급승용차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나온 주인공의 차와 비교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그는 젊은 나이에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다고 한다. 주인공에게 있어 그들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450만 원 정도하는 적지 않은 월급에 급여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까지 받는 그였지만 부자들이 마냥 부럽기만 했다. 그래서 주인공은 월급 외로 나오는 수당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주식에 투자했다.

이야기 2: 정보에 기반 한 투자

주인공은 대학 다닐 때 선배에게서 배웠던 주식투자 방법을 일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와 결합시켰다. 그는 무역회사에서 해외 건설사업에 필요한 대형 건축자재 납품회사와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대기업들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직업상 ○○건설, ○○중공업 같은 대기업 직원들을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다. 기업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회사가 어느 나라 개발사업에 사활을 거는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주인공은 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투자했으며, 투자는 성공적이었다. 주인공은 주식투자로 단박에 5천만 원을 벌었다. 당시 주인공은 인센티브와 주식투자로 5억 원 이상의 현금을 만질 수 있었다. 주인공의 말처럼 수입차 몇 대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이야기 3: 기세등등

주식투자와 인센티브로 돈을 번 주인공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고 한다. 주인공이 회사를 그만 둘 시점인 2000년대 후반에는 회사가 성장해 회사에서 지급한 차지만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외제차도 부럽지 않았다. 주인공의 구술에 의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위 “알로 보였다.”고 한다. ‘알로보다.’는 아래로 보다, 깔보다, 무시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갔는지 알게 하는 말이다. 심지어 운전하다 다른 차가 끼어들어도 한심하다는 말투로 “끼어들어라 너네 그러고 살아야지 뭐, 열심히 살아야 집도 사고 그러면서 살 거 아냐”라며 빈정거렸다고 한다. 그는 그때 당시 자신을 모습을 ‘기세등등’으로 표현했다.

이야기 4: 과도한 욕심이 부른 위험한 투자

상승하는 자신감과 더불어 욕심, 조급함 또한 커져갔다. 주식투자에서 백전백승이었던 주인공은 한방에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업무를 보면서 동시에 주식시장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한다. 주인공은 투자를 한방에 끝내기 위해 선물옵션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행운이 따랐는지 처음에는 2억 원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올렸다. 이처럼 주식투자에 자신이 있던 주인공이었지만 선물옵션은 달랐다. 주가 등락폭이 너무 크고 빠르게 변하는 상황을 예측하기는커녕 쫓아가기도 힘들었던 것이다. 주인공은 선물옵션에 손을 댄 것이 결정적인 실수라고 언급했다. 특히, 주인공은 선물옵션에 손을 대면서 투자가 아닌 도박에 들어갔다고 회상했다.

이야기 5: 꿈에도 나오는 주식차트와 둔감해지는 현실감각

선물옵션에 한창 빠져있을 당시 주인공은 꿈에서도 베팅을 했다. 밤마다 주식차트가 꿈에 나왔고 자신이 투자한 회사 주식들만 환하게 빛이 났다고 한다. 이만큼 주식투자에 깊이 빠져있었다. 반면 선물옵션에 손을 대면 댈수록 돈에 대한 감각은 둔해졌다고 한다. 주인공은 큰돈을 잃어도 크게 낙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잃어도 또 한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일종의 내성이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잃어갔다.

이야기 6: 드러난 바닥

점점 많은 돈을 잃다보니 모든 가족이 주인공의 주식투자 문제를 알아버렸다. 이때부터 가족갈등이 시작됐는데 특히, 모친의 배신감을 많이 느꼈으며 표현했다고 한다. 가족이 알아버린 상황에도 주인공은 주식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더 이상 투자할 돈도 빌릴 수 없는 지경에 가서야 주식투자를 포기할 수 있었다. 주인공은 주식투자 손실로 인해 가지고 있던 적금도 깨고 심지어는 가지고 있던 집까지 팔아야 했다. 5억 짜리 집에서 2억 짜리 집으로 다시 월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당시 주인공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잠자리에서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다고 한다. 결국 주인공은 죄책감, 좌절감 등의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다 자살까지 고려했으나, 시도 직전 포기하고 대안을 찾아 나섰다.

이야기 7: 경청하지만 공감하지 못함

주인공은 회복을 위해 상담을 받았다. 도박문제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상담사가 도박은 알았지만 주식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상담사는 열심히 들어주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관련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담사를 보며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낀 것이다. 그래서 주인공은 상담사를 신뢰하지 못했다. 상담기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그는 결국 아내의 도움으로 단도박 모임에 찾아갔다. 단도박모임에서는 다양한 도박문제를 겪은 협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야기 8: 새로운 습관 형성

주인공은 2014년부터 4년 넘게 단도박 모임에 나가고 있다. 그는 단도박 교본을 읽고 동료 단도박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게 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나름대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다시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돈이 없다는 것이다. 투자를 위해서는 최소 5천만원은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고 그 정도 규모가 아니면 해봐야 답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주인공은 애초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새로운 금융거래 습관을 만들었다. 새로운 습관은 금전 통제 방법을 생각하면서 형성할 수 있었다. 가령

모든 금전거래 상황을 아내가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게 한 다던가, 모든 카드 한도를 축소한다던가 해서 도박 기회를 차단해 버렸다. 연구주인공은 앞으로 주식투자를 하게 만드는 모든 변수를 통제해서 경제적으로 회복하고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한다.

3) 내러티브 주인공 3의 주식투자 경험

내러티브 주인공 3은 30대 남성으로, 2009년경 경제공부와 재테크를 위해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스스로 정보를 찾으면서 투자를 했다. 주식투자로 인해 1억 원 가량 손실을 입었다. 주인공은 주식투자를 하면서 카지노, 경마 등 다양한 도박을 했다. 현재는 모든 도박을 끊고 중독문제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이야기 1: 돈에 대한 열망

주인공은 2009년경 주식광고를 통해 주식에 대해 알았으며, 경제공부도 하고 재테크도할 겸 주식을 시작했다.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었던 것이다. 당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주인공은 적은 월급은 아니지만 더 큰돈을 벌길 바랐다.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주고 집도사고 차도 사고 싶은 마음에 주식투자를 했다. 2009년까지만 해도 이른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시장이 위축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자인 주인공은 자신이 있었다. 주위사람들이 주식을 하다가 반토막이 났다든지 망했다든지 이런저런 말을 많

이 했지만, 자신은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일종의 망상이었다고 한다.

이야기 2: 주식의 매력

주인공이 주식투자를 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 주식투자를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돈을 댔을 때 느끼는 쾌감 그것을 추구했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와 싸워서 이긴 것과 비슷했다. 주식시장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자신의 실력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고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마치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구술했다. 주식으로 돈을 벌 때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앞으로도 더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주인공은 주식투자 3개월 만에 파생상품에 손을 댔다. ELW(Equity Linked Warrant)라는 파생상품을 했는데,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면 하루만에 8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3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는 경험을 했다. 수익이 700%, 1,000%를 넘나든다. 이 엄청난 변동성에 매료됐던 것이다.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주인공은 주식차트에서 호가창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엄청난 흥분이 찾아온다고 구술했다.

이야기 3: 과도한 몰입

주인공은 주식에 매료되어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 큰 변동성에 승부를 건 그는 미수, 신용을 활용해 주식투자를 했다.

쉽게 말해 외상으로 투자를 한 것이다.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점점 더 큰돈을 주식에 쏟아 부었다. 결국 주인공은 1억을 날렸다. 그래도 주인공은 주식을 멈출 수 없었다. 중독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몸이, 뇌가 쾌감을 기억해 그 행위를 함으로써 돈과 기쁨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과 같았다. 주인공의 구술에 의하면 “자꾸 생각나고 또 하게 되고, 안한다고 결심을 했는데 또 하게 됐다”고 한다.

이야기 4: 늘어나는 거짓말과 무너진 신뢰

주인공은 주식투자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주식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 이때부터 머릿속에는 온통 주식에 투자할 생각밖에는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주인공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렸으며, 월급이 나와도 집에 가져가지 않고 주식에 투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원 수업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일하는 중간 중간 주식시장 돌아가는 상황만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주식차트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유능한 강사로 인정받던 그였지만 주식투자에 과도하게 몰입하면서 평판도 점점 안 좋아졌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학생도 줄어들었다. 결국 다른 학원으로 이직을 해야만 했다.

이야기 5: 소강기

6개월 간 주식에 정신이 팔려있던 주인공은 평판이 떨어져 이직을 해야 했다. 그리고 이직한 새 학원에 적응하기 위해 주식투자를 잠시 접었다. 주식투자를 접고 학원수업에 몰두했

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공은 새 학원에서 다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학생 수가 늘어나자 급여도 나날이 올라갔다. 많이 벌 때는 월 800만 원 이상을 벌었다. 1년 간 열심히 일을 했으며 경제적으로 회복하고 마음에 여유도 생겼다.

이야기 6: 악순환의 고리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이 문제였는지, 주인공은 다시 주식을 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로 인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다시 주식에 손을 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강의 능력이 떨어지고 평판이 떨어져 새로 옮긴 학원을 떠나야 했다. 물론 돈도 잃었다. 이후에도 이 같은 일은 반복됐다. 이직한 학원에 집중하고 다시 주식에 집중하고를 반복하면서 주인공은 여러 번 학원을 옮겨 다녀야 했다.

이야기 7: 고기 맛을 본 맹수처럼

주인공은 1년 정도 주식에 몰입한 후 지속적인 쾌감을 느끼기 위해 카지노, 경마,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주식시장이 문을 닫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주식이나 도박이나 다 성향이 비슷하다고 보았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베팅을 하고 운이 좋으면 돈도 따고 큰 쾌감을 얻는 것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슷한 점 때문에 주인공은 다른 도박에 더 쉽게 빠져들었다. 주식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이면 카지노, 경마장에 다니고 그것도 아니면 인터넷에 접속해 다른 도박거리를 찾았다.

사실 주인공은 주식을 하기 전에는 도박에 대해 전혀 몰랐다. 화투패의 숫자도 볼 줄 몰랐고 심지어는 포커룰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주인공이 변한 것이다. 주인공은 주식이란 걸 시작하면서 도박중독자로 변해했다고 회한 섞인 말투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상황을 고기 맛을 본 맹수로 표현했다. 사자가 처음에 고기 맛을 보지 않았다면, 고기를 갈망하지 않았을 텐데 한번 고기 맛을 본 사자는 계속해서 고기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야기 8: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안함

주식과 도박으로 주인공은 많은 돈을 잃었다. 주식으로 1억 원 가량을 손해 봤고 다른 도박으로 4천만 원 가량 손해를 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족들과의 갈등이 시작됐으며, 주인공 역시 도박을 이길 수 없으며, 계속하면 자신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주인공은 도박을 끊기 위해 상담사를 찾아갔으며 상담사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후 주인공은 모든 금전 관리를 아내에게 맡겼으며 더 이상 주식에 손을 대진 않았다. 하지만 그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주인공의 구술에 의하면 그는 주식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었다.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증거금(담보)이 1,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주식은 회전율이 떨어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야기 9: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음

현재 주인공은 주식을 포함한 모든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주인공은 혼자 있는 무료한 시간에 도박의 유혹을 자주 느꼈다. 그래서 무료한 시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음악, 운동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 끝으로 주인공은 열심히 노력해서 빚도 갚고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2. 내러티브 주인공들의 주식투자 경험 재구성

1) 돈에 대한 열망

내러티브 주인공들은 모두 돈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 돈에 대한 열망은 주식투자를 하는 하나의 동기로 작용했다. 주인공 1은 쉽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했으며, 주인공 2는 부자들을 동경했고, 주인공 3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원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누구나 돈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주인공들의 열망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이상이었다. 주인공들은 쉽게 더 많이 벌기 위해 주식투자를 했다. 쉽게 돈을 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주식의 도박적 특성을 읽을 수 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에는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을 하루에 벌 때도

있었습니다. 가게 앞이 버스정류장이었는데, 매일 파김치가 되어 만 원버스로 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까?’ 라고 비웃으며 더 쉽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제 인생의 모든 판단기준은 돈이었습니다(주인공 1의 소감문).”

“인제 월급쟁이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만 인제 회사차를 타고 왔다갔다 영업을 하고 있고, 주차장(무역센터)에 보면 대부분 수입차들이 많아요. 국내 차는 세단 뭐, 비싼 차들? 그런 차 타고다니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선망이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좋아보였어요(주인공 2).”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했어요.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성공해서 가족들한테 돈도 주고, 저도 여유롭게 살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고(주인공 3)”

2) 주식정보 입수

내러티브 주인공들은 친구, 학교 선후배, 광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주식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배웠다. 주인공 1의 경우 친구와 학교 후배를 통해 주식을 배웠으며, 주인공 2는 학교 선배에게서 배운 주식과 거래처 직원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주식에 투자했다. 주인공 3은 주식광고와 소문을 통해 주식을 접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와 같은 주변 환경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주식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돈에 대한 열망과 더불어 주변에서 제공하는 주식정보는 주식투자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자 동기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쩌면 돈에 대한 열망만 있고 주식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다면 주인공들은 다른 투자처를 찾았을지도 모르겠다.

“후배가 금융권에 근무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증권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고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가 자영사업을 할 때 좀 굉장히 여유가 있었으니깐 알게 됐죠(주인공 1).”

“인센티브를, 제가 받는 부분의 일정부분만 이제 대학 다닐 때 인제 선배한테 배웠던 주식을 ...어... 그거를 회사에서 접목이 되더라고요(주인공 2).”

“주위에서 광고도 하고 그냥 주위사람들이 주식을 하다가 반토막이 났다든지 그 당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뭐 반토막이 났다더니 뭐 어찌고 저찌고 뭐 그런 소리를 듣다가 나는 잘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 시작하게 됐죠(주인공 3).”

3) 변동성의 유혹: high risk high return

내러티브 주인공들은 큰 수익 변동성에 매료되어 주식에 깊이 빠져들었다. 투자 대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주식은 베팅 규모가 다르다. 쉽게 말해 일반 도박보다 더 큰 판돈이 오고가는 것이다. 베팅 규모나 판돈이 커지면 손실 위험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손실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불확실한 미래에 모험을 걸어야만 한다.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해도 너무

나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내기를 거는 것 자체가 도박이다. 주식은 베팅 금액이 일반 도박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어찌면 일반 도박보다 더 위험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주식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high risk high return’ 이 바로 주식의 도박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식은 인터넷 고스톱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 한판을 치더라도 또 한 5분이고 뭐 이렇게 걸리고 그래서 그 거기서는 하루에 잃어봐야 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따 봐도 2~3백. 근데 주식은 1억만 투자했어도 이익이죠. 1억만 투자해도 뭐 아침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니깐 6시간의 뭐 2~3천 정도는 쉽게 잃게 따죠(주인공 1).”

“선물옵션으로 갈아타면...하루에도 칠팔천을 막! 땡길 때는 확~땡기니까. 이거 두 달에 어떻게 삼천을 기다려. 그리고 또 내 돈 2억 넣고. 이거는 뭐, 오천 집어넣고 칠천도, 하루만에 뺄 수 있는데 제대로 맞으면. 두 번, 물 타기 몇 번만 해가지고 그냥 뺄 수도 있는 데. 그러니 이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주인공 2).”

“ELW란 파생상품을 하게 됐는데, ○○전자를 100만 원어치를 샀는데 ○○전자 ELW를 하루만에 8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게 엄청난 변동성에 매력을 느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3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300만 원이 2,400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더 빠지게 됐어요(주인공 3).”

4) 돈의 가치 상실

주인공들은 주식을 하면서 돈의 가치를 상실해 갔다. 주인공 1은 처음부터 억 단위의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 보다 적은 금액은 시시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주인공 2, 3은 돈을 잃어도 한방에 복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잃어버린 돈에 대한 미련을 크게 갖지 않았다. 투자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이다. 투자에 대한 내성은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 어떠한 상관없이 지속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만든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시하지 않게 점점 더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한다.

“처음부터 억 단위로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깐 그러면 잃은 돈도 벌써 몇 억 인데 아 뭐 5백만 원, 천만 원 있다고 해봐야 뭐 그 돈을 딸 수도 없고 또 시시한 거죠(주인공 1).”

“선물업체에 손대기 시작하면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됐어요. 그 반복이라는 거는 똑같죠. 어.. 이렇게 넣다가 어? 에이~ 그래 뭐, 어차피 또 한방 있으니까(주인공 2)”

“경제관념이 많이 손상된 거 같아요. 건강한 경제관념을 놓치게 된 거 같아요...금방 잃고 따고를 반복하니까 돈을 잃어도 크게 생각 안하는 거죠(주인공 3).”

5) 차트에 갇힌 영혼

주인공들은 주식투자에 몰입하면서, 온정신을 주식시장에 집중했다. 주인공 2와 3의 구술에서 주인공들이 얼마나 주식투자에 빠져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주인공 2의 경우 주식차트가 꿈에 나올 정도로 주식에 몰입했으며, 주인공 3의 경우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주식에 몰두했다. 일종의 중독 증상이자 금단 증상이다.

“꿈에도 나와요. 인제 등하락 표시가…빨간 거, 파란거가 켜~아악 나옵니다. 주요 상장주가 나오는데, 제가 주로 사는 건설이나 중공업주들만 이렇게 막 빛이 나요. 판에서 그 주들만 빛이 최악 나와요. 그러면 ‘아.. 이제 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주인공 2).”

“수업 중간에 이제 장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중간에 내려와서 이제 컴퓨터 검색해보기도하고. 미국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다우하고 나스닥 이런 게 오르냐, 내리냐 밤에 이제 확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 딴 데 가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업에 집중이 안 되죠(주인공 3).”

6) 남아있는 불씨(하고 싶어도 못함)

내러티브 주인공들은 더 이상 주식투자를 하지 않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있었다. 모든 주인공들은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 구술했다. 주인공 1은 1억 정도의 큰돈이 뒷받침 될 수 있다면 주식을 다시 할지도 모른다

고 했고, 주인공 2는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생기면 다시 주식 투자를 할 것 같다고 했으며, 주인공 3은 1,500만 원 정도의 돈이 생기면 다시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액은 각자 달랐지만 어느 정도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의 돈이 생기면 주식에 다시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은 같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주식투자의 중독성이다. 주인공들 스스로가 다시 투자를 감행할 가능성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투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위험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주인공들은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주식중독의 재발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주인공들은 주식투자의 기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금전관리를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고 있었다.

“이제 안했다기 보다는 못한다고 거죠. 내가 만약에 계속 그러면 그런 큰돈(억 단위)이 계속 뒷받침 될 수 있었다면 저는.. pc게임이 아니라 계속 주식을 했을지도 모르죠. 몇 백, 몇 천, 적은 돈으로 하는 도박은 어쩌면 주식에 비해 시시하죠(주인공 1).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돈이 없어요. 돈만 생기면 할 것 같아요. 내 스스로를 못 믿겠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현재진행형인데요. 저는 돈이 한 5,000이 안되면 시작을 안해요. 해봐야 답이 없으니까. 5,000정도는 모여야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돈이 이제 없고 그것도 할 수도 있었는데 날 못 믿겠으니까 내 은행(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집사람이 알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신용에 변동이 생기면 알림문자가 가는 게 있어요. 그런 장치를 걸었어요(주인공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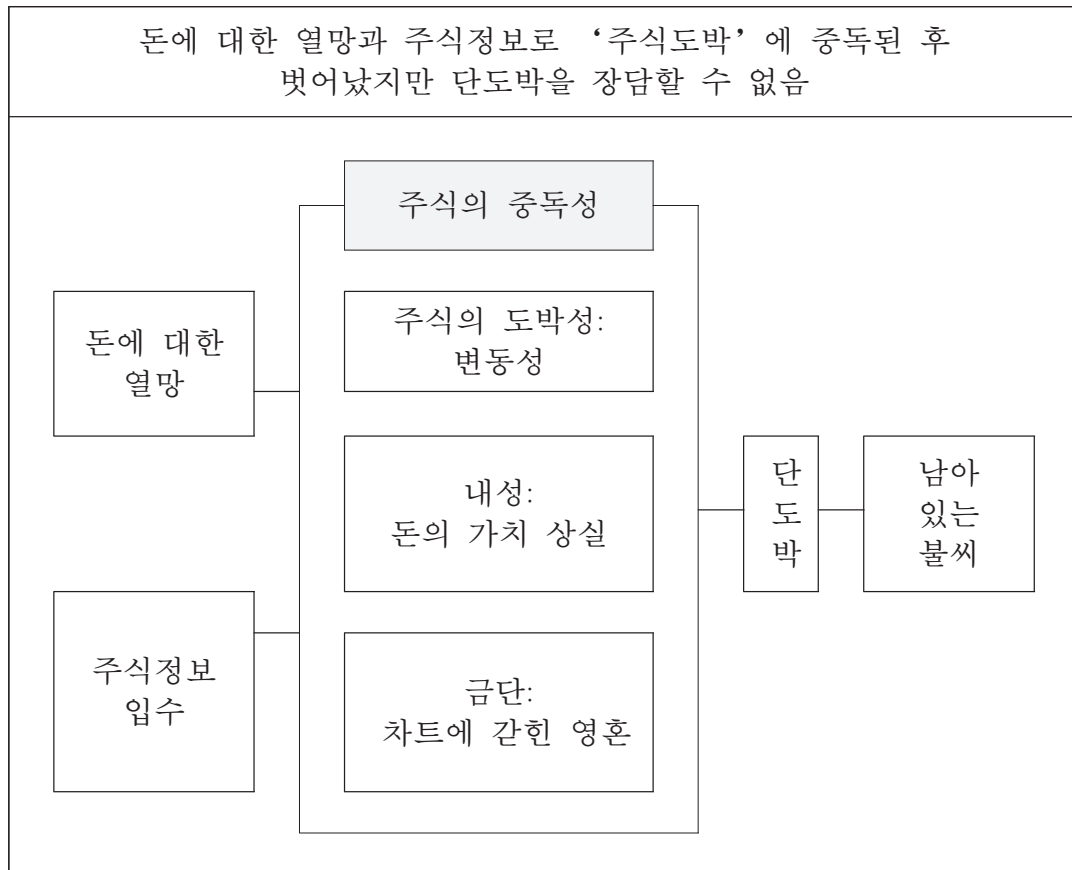
“파생상품은 안 해요. 파생상품을 할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거

예요. 그거는 증거금이 필요하거든요. 1500만 원 정도의 증거금이 필요해요.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어쩌면 할 수도 있겠죠(주인공 3).”

문제성 주식투자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내러티브 주인공들의 경험을 종합해 보면, 주인공들은 돈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식정보를 입수하면서 주식투자를 통해 이 열망을 실현하고자 했다. 주식투자과정에서 주인공들은 ‘변동성’이 주는 매력에 빠져들었다. 이 변동성 때문에 과도하게 몰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도한 몰입으로 인해 그들은 돈의 가치를 상실했으며, 주식차트가 꿈에 나올 정도로 온 정신을 주식시장에 집중했다. 차트에 영혼을 빼앗겨 버린 것 같았다. 주식으로 큰 손해를 본 후 주인공들은 단도박모임이나 상담센터에 나가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었으며, 주인공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주인공들은 금전관리에서 손을 떼고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주인공들의 이 경험을 통합해 볼 때 주인공들의 내러티브는 결국 “돈에 대한 열망과 주식정보로 ‘주식도박’에 중독된 후 벗어났지만 단도박을 장담할 수 없음”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문제성 주식투자 경험 재구성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주식투자의 도박성과 중독성을 탐구하는 데 있다. 주식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주식의 경제적 효과나 법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주식에 대한 과도한 투자나 중독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⁴⁶⁾⁴⁷⁾⁴⁸⁾⁴⁹⁾⁵⁰⁾ 이 연구는 주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간과 했던

46) 김순석, 2009, 131-173쪽.

47) 김희철, 2015, 347-368쪽.

도박성과 중독성을 파악했다는데 의의와 차별성이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돈의 의미에 대한 성찰 기회 제공’에 관한 논의이다. 연구결과 내러티브 주인공들은 모두 ‘돈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어쩌면 주식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돈에 대한 열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돈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볼 것을 권하고자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돈은 필수불가결한 가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목적 그 자체가 돼서는 안된다. 돈 이전에 돈을 통해 어떤 삶을 살고자 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실천가들은 돈이 자신에게 왜 필요한지, 돈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도록 상담과정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랑, 우정과 같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둘째, ‘도박중독 상담자에 대한 주식 및 경제 교육’에 관한 논의이다. 연구결과 내러티브 주인공 2의 경험에서 과도한 주식투자에 대한 상담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인공은 주식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구술했다. 왜냐하면 상담사가 공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상담자가 주식을 해보라는 말은 아니다. 적어도 주식의 도박성, 중독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48) 김현석·서정원, 2018, 27-67쪽.

49) Butler, A. W., Grullon, G., and Weston, J. P., 2005, p. 331-348.

50) Jacoby, G. and Zheng, S. X., 2010, p. 81-88.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중독상담 현장에 있는 실천가들은 주식의 도박성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 도박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과도한 주식투자를 주식도박으로 받아들일 경우 도움을 받아야 할 잠재적 내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담 현장에 있는 실천가 역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주식문제로 찾아온 내담자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

셋째, ‘주식투자 절제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에 관한 논의이다. 잘못된 주식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과도한 주식투자의 위험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주식투자 위험성을 경고하는 수준에 그친다. 물론 주식투자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개인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주식투자를 절제할 수 있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방차원에서 주식투자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사행산업 개념에 대한 재논의’이다. 주식은 정부의 관리 규정상 도박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행산업 종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 때문에 사람들은 주식투자를 온전히 건전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어느 분야든, 어느 종목이든 과도한 투자는 항상 위험을 동반한다. 주식 역시 마찬가지다. 주식이 건전한 투자를 표방하지만,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정 부분 도박적 특성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가령 파생상품 같은 경우 어찌면 일반 도박보다 더 투자자를 위험상황으로 이끈다. 따라서 파생상품과 같은 위험성을 가진 주식투자를 사행산업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것으로 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학계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소수의 구체적인 경험에 집중하고자 했기 때문에 주식의 다양한 도박성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을 선정하여 주식의 다양한 도박적 특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주식의 도박성을 다룬 초기 연구이기 때문에 주식의 어떤 면들이 도박과 유사한지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때문에 소위 ‘주식중독’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지 못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주식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주식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준혁,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과 실존체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김교헌, 「병적 도박 선별을 위한 K-NODS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권 3호, 2003.
- 김기범·김민선·박재표, 「주식 투자 격언에 대한 시장 반응 비교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권 9호, 2015.
- 김병국, 「내러티브 탐구의 존재론적, 방법론적, 인식론적 입장과 탐구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인류학연구』, 15권 3호, 2012.
- 김순석, 「주식제도의 개선: 종류주식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28권 3호, 2009.
- 김진우, 「질적연구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자료, 2012.
- 김필성,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비교 고찰」,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2권 3호, 2014.
- 김현석·서정원, 「무상증자, 액면분할, 주식배당: 주가와 거래량 효과」, 『한국증권학회지』, 47권 1호, 2018.
- 김희철, 「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 연구 - 미국 델라웨어주의 최근 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50권 4호, 2015.
- 박영옥, 『주식투자자의 시선』, 프레너미, 2016.

- 백용호 · 차명준, 「도박심리를 이용한 주식투자 행태분석」, 『한국증권학회지』, 16권 1호, 1994.
- 염지숙,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권 1호, 2003.
- 염지숙, 「내러티브탐구(Narrative Inquiry)를 통한 유아 세계 이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전이 경험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권 3호, 1999.
- 염지숙 · Jennifer, M. K., Yi, L.,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교수경험에 대한 성찰」, 『한국교원교육연구』, 24권 2호, 2007.
- 유기웅 · 정종원 · 김영석 · 김한별,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2012.
- 윤재수, 『대한민국 주식투자 100년사』, 길벗, 2015.
- 이규성, 『개미가 주식시장에서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이유』, 문예출판사, 2011.
- 이순목 · 김종남, 「도박중독 문제의 본질에 충실한 평가/진단 및 비율 산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권 1호, 2009.
- 장경천 · 김현석, 『증권투자론』, 삼영사, 2009.
- 장진모, 『주식의 역사』, 한국경제신문, 2004.
- 조준배, 「경제적 스트레스요인이 부부갈등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자아존중감과 자기생활만족도 그리고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7, 2009.
- 최희진, 「중등체육 예비교사의 교육실습 체험에 관한 내러티

브 탐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6권 1호, 2009.

홍현미라 · 권지성 · 장혜경 · 이민영 · 우아영,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학지사, 201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ition(DSM-5)*, Washington DC: Author, 2013.

Bruner, J.,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Butler, A. W., Grullon, G., and Weston, J. P., “Stock market liquidity and the cost of issuing equity” ,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Vol. 40, No. 2, 2005.

Clandinin, D. J. & Connelly, F. M., 소경희 · 강현석 · 조덕주 · 박민정 옮김,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경험과 사례』, 교육과학사, 2007.

Clandinin, D. J., 염지숙 · 강현석 · 박세원 · 조덕주 · 조인숙 옮김,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2015.

Clandinnin, D. J. & Connelly, F. M., *Shaping a professional identity: stories of educational practice*, Alban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90.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and Simons, R. L,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 *Child Development*, Vol. 65, No. 2, 1994.

- Connelly, F. M. & Clandinnin, D. J.,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 *Educational Researcher*, Vol. 19, No. 5, 1990.
- Cresswell, J. W, 조홍식 · 정선욱 · 김진숙 · 권지성 옮김,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2010.
- Custer, R. and Milt, H., *When Luck Runs Out : Help for Compulsive Gamblers and Their Families*, New York: Facts on File, 1985.
- Dickerson, M. G., Baron, E., Hong, S. M., & Cotrell, D., “Estimating the extent and degree of gambling related problems in the Australian population: A national survey” , *Journal of Gambling Study*, Vol. 12, No. 2, 1996.
- Griffiths, M. D., “The role of subjective mood states in the maintenance of fruit machine gambling behaviour” , *Journal of Gambling Studies*, Vol. 11, No. 2, 1995.
- Jacoby, G. and Zheng, S. X., “Ownership dispersion and market liquidity” , *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ial Analysis*, Vol. 19, 2010.
- Martin, H. P. & Schumann, H., 강수돌 옮김, 『세계화의 덫: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 영림카디널, 2003.
- McGurrin, M. C., *Pathological Gambling : Conceptual, Diagnostic, and Treatment Issues*, Sarasota, Florida: Professional Resource Press, 1992.
- Miller, L. M. & Carpenter, C. L., “Altruistic leadership

strategies in coaching: A case study of Jim Tressel of the Ohio State University” , *A Journal for Physical and Sport Educators*, Vol. 22, No. 4, 2009.

Problem Gambling Institute of Ontario, *Problem Gambling: The Issues, the Options*, Canada: Centre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 1990.

Sifakis C., *The Encyclopedia of Gambling*, New York: Facts on File, 1990.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2018.03.20.

(검색일: 2018.06.19.)

<뉴스1>, 「정부청사에서 투신한 김씨 아들 “아버지 주식투자로 돈 잃은데다 우울증도 심해져”」,

<http://news1.kr/articles/?851332>, 2012.10.14. (검색일: 2018.6.19.)

<부산일보>, 「60대 남성, 주식 투자 큰 손실 후 목 매 숨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118000111>, 2018.01.18. (검색일: 2018.6.19.)

A Narrative Inquiry of Experience of Excessive Stock Investments - A Study on Gambling of Stock Investments -

Kang, Jun Hyeok,
(Eulji Univ.)

Maeng, Seong Jun
(Sungkyunkwan Univ.)

This study aimed to illustrate characteristics of stock investment as gambling and addictiveness through research on an experience of excessive stock investments. To achieve the goal, 3 narrative main characters were selected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1 on 1 in-depth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a narrative inquiry research method suggested by Connelly and Clandinin(1990). As a result, 'a desire for money', 'a stock information acquisition', 'variability', 'a loss in the value of money', 'a soul trapped in charts', 'the embers of fire' were drawn as the subject matters of a discussion. By putting these drawn subjects together, the narrative of a stock investment experience was generalized to the point that "once addicted to 'Stock Gambling' with a desire for

money and a stock information, people got clean but can not assure stopping gambling". The researchers express the necessity for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examining the meaning of money for oneself', 'proving an education on stock and economics to a addiction rehabilitation counsellor', 'introducing programs on controlling stock investments' and 'a rediscussing the concept of gambling' based on the result.

Subject: Social welfare, Mental health

Key Words: Stock, Narrative Inquiry, Gambling